

SK차이나, 상하이 빌딩부지 3200억원 낙찰

SK그룹은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엑스포단지의 상업용 빌딩 부지 3만㎡ 정도를 낙찰받았다고 9월26일 발표했다.

중국사업을 전담하는 SK차이나가 8월 상하이 엑스포 운영 관련기관으로부터 토지가격 18억위안(약 3200억원)에 낙찰받았다.

상하이를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끼고 있는 엑스포 부지는 시내 중심지이나 금융 중심인 루자취((陸家嘴)와 가까워 개발 참여가 활발한 곳이다.

SK차이나는 낙찰 직후 토지가격 절반가량의 금액을 선납했으며 조만간 잔금도 완납할 예정이다.

낙찰받은 부지는 상하이 푸둥지역의 엑스포 개발구역 중에서도 핵심인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구역에 있으며 높이 28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SK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지가 시내 중심가에 인접해 있어 공장이 들어서기는 힘들고 상업용 빌딩을 세워 중국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6>